현장시선

기업형 수퍼마켓(SSM)과 제주도 경제

고 상 호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중소기업회장

올해 1~2월중 제주지역 '대형마트 판매액지수'가 전년동기 대비 4.8% 감소했다는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발표자료를 통해 제주도가 소비침체기를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두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와중에 제주시 아라1동에 이마트 계열 준대형마트이자 기업형 수퍼마켓(SSM)인 '노브랜드'가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

신축 단독건물로 매장면적이 480㎡로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꽤 큰 쇼핑시설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제주시에서 지난 4월17일 입점예정공고를 해 5월18일 개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브랜드' 입점 추진에 대해 제주도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는 이미 대형할인마트 및 대기업 편의점 등의 무차별한 입점으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이 급격히 몰락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마트가 상인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가맹점 형식을 빌린 SSM을 제주도에 최초로 입점시키고 이를 도내 전역으로 확산할 경우 중소상권 전체가 뿌리째 흔들릴 것을 우려한다.

최근 '노브랜드' 입점 예정지 중소점포 13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입점 시 점포당 일평균 매출액과 고객수가 각각 62%, 46% 감소하고, 점포중 77%가 향후 1년내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응답은 입점 시 미칠 충격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도민들이 소비한 매출금액을 대기업 할인마트 및 편의점과 같이 '노브랜드'도 제주도에 재투자하지 않고 대부분 육지로 송금하여 곶감 빼먹듯 빠져 나가면 지역경제가 피폐해질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같은 엄중한 사태에 직면하여 제주도에 당부하고 싶다. 우선, 지역상권의 우려를 반영, '노브랜드'의 입점 기도에 따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미칠 영향 분석을 통해 생존권 보호대책을 마련하되 이와 같은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사업조정절차에 따른 권고를 준용하여 입점 연기 권고와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려줄 것을 희망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즉각 개최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SSM 입점추진에 따라 지난 10년간 717건의 사업조정신청 건이 접수돼 이중 조정절차를 거치면서 179건이 입점철회로 마무리됐다. 이같은 배경에는 입점시 미칠 중소상권의 피해를 인식한 지자체의 문제해결 의지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제주도가 적극 참고해 주길 바란다.

중장기적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현행 준대규모 점포의 경우 개설등록 신청 시 전통상업보전구역 내에 출점할 경우에만 제출토록 하고 있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전통상업보전구역 내 출점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토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사업조정 대상 체인점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 현행 대기업의 투자비율 51% 이상 충족조건에서 동 투자비율에 상관없이 모두가 사업조정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위장 가맹점으로 편법입점하는 SSM을 막아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제주도 경제의 뿌리인 중소상권의 유지 발전을 위한 관계당국의 현명한 대응을 기대한다.

사설

대기업 면세점은 수익만 챙기면 그만인가

제주지역 면세업계의 동향을 보면 허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과 공기업의 면세점 매출 실적이 극과 극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도내 대기업 시내면세점의 매출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공기업 면세점의 매출은 오히려 감소해 면세업계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호텔신라 신제주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제주점은 각각 2629억원과 2434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호텔신라 신제주면세점의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6%, 롯데면세점 제주점은 58% 각각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두 대기업 시내면세점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공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들은 한마디로 죽을 맛입니다. 제주관광공사(JTO)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두 공기업의 면세점 매출은 늘기는 커녕 되레 줄어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주국제공항에 입점한 JDC 지정면세점은 전년 동기 대비 1% 줄어든 1175억원입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들어선 JTO 지정면세점은 지난해 1분기보다 6% 줄어든 85억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그쳤습니다.

특히 서귀포시 롯데호텔에서 제주신화월드로 이전한 JTO 시내면세점은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매출이 48억원으로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무려 19%나 하락한 겁니다. JTO 시내면세점은 그동안 계속된 매출 신장세에도 송객수수료와 판매·관리비 지출이 더 많아 오히려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올해 1분기에는 매출까지 크게 떨어져 흑자 경영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올들어 제주관광이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도 대기업 면세점들만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비단 올해들어서만 반짝 재미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 면세점들은 지난해에도 사상 최대 매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반해 공기업의 지정면세점 매출은 줄어들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니 제주관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낙수효과가 좋을리 있겠습니까. 대기업 면세점들이 거의 독식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고 제주관광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 면세점들이 지역에 환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재주는 제주가 부리고 돈은 대기업이 챙긴다'고 하는 겁니다. 이참에 대기업 면세점들이 제주관광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만큼 수익의 일부분을 지역에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열린마당

'신선님 축복 문흔디 받게마씸!'

문 명 숙
방선문축제 사무국장

'신선님 축복 문흔디 받게마씸!'를 주제로 제16회 방선문 축제가 5월4일~5일까지 국가명승제92호 방선문 일대에서 개최된다.

영주십경(瀛洲十景)의 하나인 영구춘화(瀛丘春花)로 유명한 방선문은 선인들의 위대한 자연문화유산으로써 천혜의 아름다움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제주를 태동한 전설과 신화가 가득하고 선현들의 얼이 살아 숨 쉬는 마애각이 보존돼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기도 한다.

이번 축제는 참가객이 주인공이 되는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됐다.

첫날 오라동민속보존회가 꽃길을 트고 신선을 부르는 북소리로 축제의 막을 올린다. 제주어로 말하는 '신선님 제 소원 들어 주십서' 코너에는 유치부, 초, 중, 고, 일반, 다문화가족등 세대별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절절한 소원을 들어보는 이색적인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우리 동네 최고'에는 마을별, 단체별, 주민자치프로그램 등에서 몇달 전부터 연습을 하여 출전하는 경연대회에는 초등학교 단체부터 마을 최고 어르신들로 구성된 '장수만세' 팀까지 열띤 경연을 벌일 계획이다.

둘째 날에는 방선문가는 숲길 걷기와 '숲 속 작은음악회' 공연이 그림처럼 펼쳐질 예정이다. 또 어린이날을 맞이해 '꿈나무대행진' 어린이만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방선문장원급제'에는 문학, 서예, 미술 경연을 통하여 우수작품은 장원급제의 영광을 안게 되고 '만덕할망의 후에 대상인'으로 물물교환과 판매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그리고 신선을 흘리는 춤사위와 '신선보물찾기'로 축제를 장식한다.

알찬 프로그램으로 풍류를 즐기며, 신선님의 축복을 듬뿍 받는 방선문축제에 도민과 관광객 여러분을 초대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전기차 규제특구 공청회 '썰렁'

문경삼 과장 "아쉽다"

○…2일 농어업인회관에서 진행된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계획 공청회'가 주최측인 도청 관계자와 취재진을 합해도 50여명 정도만 참여해 썰렁한 분위기.

문경삼 제주도 저탄소정책과장은 회의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이 오지 않은 것 같다"며 "특히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전부 참석해 궁금한 사항을 체크하고 진행 상황과 계획을 공유해야 하는데 아쉽다"고 발언.

문 과장은 "누구보다 사업을 제안한 참여자들의 관심이 없으면 어렵다. 끝까지 화이팅하자"고 당부.

표성준기자

민원응대 부서 친절 컨설팅

○…서귀포시가 민원인과 공직자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 모색을 위해 최근 민원응대 부서를 대상으로 친절 컨설팅을 진행.

이는 민원인 등 외부에서 바라보는 공직자의 친절 체감도가 낮고, 민원 응대 부서에서는 일부 민원인의 폭언·폭설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기가 떨어지면서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 개선을 위한 것.

시 관계자는 "현재 운영중인 친절시책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과 타 시도 사례를 통해 민원인과 공직자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

문미숙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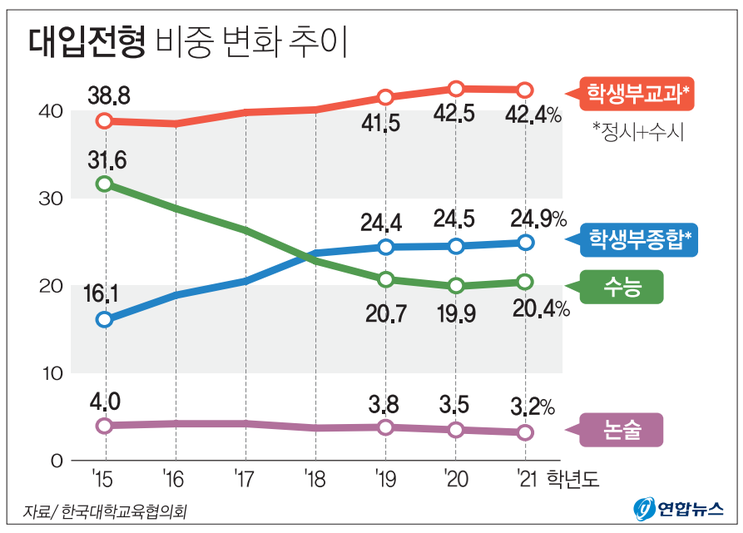
관악제 밖거리음악회 변신

○…2019제주국제관악제 밖거리음악회가 축제 분위기를 미리 돋우는 사전 음악회로 5월부터 진행.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는 2일 올해 관악제 기본 계획을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에서 "국제관악제 기간에 밖거리음악회를 개최할 경우 스태프 피로감 등이 겹쳐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배경을 설명.

이에 따라 밖거리음악회는 이달 4일 가파도를 시작으로 8월 4일까지 매월 첫째·넷째주 토요일에 이시돌 삼위일체대성당, 서귀포관광극장 등 총 8회 예정. 진선희기자

그래픽 뉴스



부 고

한윤석(메종글래드제주) 어머니 **군위오씨 금선(향년 82세)**께서 서기 2019년 5월 2일 15시 15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19년 5월 4일(토)
▶ 발인일시: 2019년 5월 5일(일) 오전 8시
▶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분향실
▶ 장 지: 성산읍 난산리(통오름) 선영

남 편 한재원
아 들 한윤석 며느리 김은경
딸 한순자 사 위 강유진
손 자 한세흠 외증손자 강서준
지원 서훈
지우 서환
외손자 강순오 현재호
외손녀 강혜정 태건
외손부 권은영 외증손녀 현민서
외손서 현창석

※ 연락처 : 한윤석 010-7276-5409
강유진 010-3639-7083

임 대
한라일보사 1층
전용면적 : 53평, 20평
용도 : 의원, 사무실 등
문 의
064-750-2530

계분 판매합니다.
(배 달 가 능)
무항생제인증,
HACCP인증 받은
자연건조한 계분(산란계)판매
전 화 : 064-796-6947
핸드폰 : 010-3699-3344
신일농장, 제주팜
(주소 : 제주시 한림읍 명상로106-7)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대학병원 임상결과 1일 5g섭취 식품안전성 입증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
진흥원
판매장 등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백도라지연구소

★ 해외농업 (개발) ★
(영농조합원, 10명모집)
지역 : 베트남(다낭, 꽝남)
사업명 : 한라봉, 레드향
고품질(만감류)
동남아시아수출 (96만평)
기상.토양.최적지 (고소득 창출)
상담 문의 010-9292-6933
봉개동 황금농원
010-2699-557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 라 전 설 (주)
대 표 :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제주도정 소식

불법 숙박업소 신고센터 운영
신고센터: 제주시청 ·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문의: 728-3051(제주시), 760-2621(서귀포시)

2019 제주 반려동물 페스티벌 개최
○ 기 간: 2019. 5. 4(토) ~ 5. 5(일) [2일간]
○ 장 소: 제주시민복지타운광장
○ 주요행사
· 첫째 날(5.4일): 개막식, 반려견과 함께하는 마라톤(런닝멍), 강형욱 훈련사 강연, 반려인&반려동물 멍때리기 대회, 야간 공연 등
· 둘째 날(5.5일): 어린이 사상대회, 강형욱 훈련사·나응식 수의사 강연, 반려인&반려동물 닮은꼴 콘테스트 등
○ 문 의: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064-710-2143) 또는 홈페이지 방문(https://www.jejufairs.com)

제주해녀문화콘텐츠 문화상품 발굴지원 공모 안내
○ 접수기간 : 2019년 09월 16일(월) ~ 09월 27일(금) 18:00까지
○ 주 제 : 제주해녀문화 콘텐츠를 소재로, 향후 문화상품으로 판매 가능한 작품
○ 접수방법 : 공모신청서 + 출품작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공모 신청서 양식은 제주영상 · 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ofjeju.kr)에서 다운받아 작성
○ 접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로82(일도2동) 제주영상 · 문화산업진흥원, 문화사업팀 해녀문화콘텐츠 문화상품 공모전 담당자
- 문의 : (재)제주영상 · 문화산업진흥원 문화산업팀 공모전 담당자 (064-735-0619)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자 모집 안내
□ 신청자격 :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등에게 숙박과 어업·생활 지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우수 귀어·귀촌 가구 또는 선도어가 등 어업인 가구주
□ 신청기간 : 2019.04.25. ~ 2019.05.09.(15일간)
□ 운영기간 : 2019.05.20(월) ~ 사업종료 시까지
□ 신청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으로 직접 방문, 우편 및 이메일 신청
□ 제출서류 :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 신청서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자원과(710-84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